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⑰

수레꾼 고등학교를 짓지 못한 아쉬움



수레꾼이 세운 뽀디봉 중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최북단 국경 마을에 세운 뽀디봉 초등학교는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에서 시작된 학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아이들이 글을 깨우쳐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뽀디봉은 물도, 전기도, 제대로 살아갈 집도 변변치 않은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조건뿐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이들에게 글이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를 세웠더니 가슴 아픈 일뿐이었습니다. 교실만 있다고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들에게 월급을 줘야 했고, 햇볕을 피할 나무와 마실 물도 필요했습니다. 수레꾼은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제대로 주지 못해 많은 나무가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더 배울 곳이 없어 태국으로 넘어가 막노동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동을 선택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레꾼은 중학교를 세웠습니다. 캄보디아 여러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이 프놈펜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 동안 대학 등록금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대학생들과 함께 해마다 뽀디봉 마을을 찾아 농촌봉사도 이어왔습니다.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와 비교하면 마을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뽀디봉 마을 380가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0가구는 여전히 뿌연 흙탕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몸을 씻고,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도 환경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힘이 저희에게는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NGO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때로는 처음 세운 계획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멈추지 않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뽀디봉 초등학교에는 50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수레꾼이 세운 뽀디봉 중학교에는 250여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해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70명 가까이 되지만, 그 가운데 절반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난입니다.

뽀디봉 마을에서 고등학교에 가려면 자동차로 약 40분, 오토바이로 약 50분 떨어진 썸라옹 시내까지 나가야 합니다. 가난한 농촌 가정 아이들에게 6개월이나 되는 우기 동안 매일 그 길을 오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수레꾼에게 고등학교까지 세울 힘은 없어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새로 짓는 대신 썸라옹 시내에 작은 기숙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뽀디봉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한데 모여 생활하며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어쩌면 작은 기숙사 하나가 아이들의 끊어진 배움의 길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뽀디봉에서 수레꾼이 해야 할 일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⑨ 첨단의 시대, 청년 불자들과 함께

학생 눈높이서 함께 걷고 고민할 터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학교는 올가을 영캠프 준비로 매우 분주합니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영캠프보다는 더 성숙하고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동국대 첨단융합대학 불교동아리 'BUDDHAI' 법사를 맡은 지 2년이 훌쩍 지나, 그간 두 차례 영캠프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벌써 세 번째 영캠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BUDDHAI'란 불교동아리 이름은 'AI융합대학'이라는 초기 대학 명칭에서 따온 것으로, 부처님(Buddha)과 AI의 융합이라는 현대사회의 화두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첨단융합대학은 설립된 지 약 6년 정도밖에 안 된 단과대학입니다. 그래서인지 동아리 초기만 해도 체계가 잡히지 않아 모든 것이 어수선했고, 법사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당시 학생들 역시 학제 개편과 구조조정이란 변화 속에 갈피를 못 잡고 있었고, 학업과 아르바이트, 취업이라는 현실적 무게 속에서 삶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도 BUDDHAI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기존 종교의 틀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인 덕분에 창립 초반 동아리 가입률이 교내 타 단과대학을 항상 앞섰습니다. 마음의 쉼표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발담글 수 있는 불교가 학생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한 법회 진행보다 깊이 있는 체험
청년들 현실 이해 속 맞춤형 정기 활동
마음 안식처 되도록 전법 다져나가려 해

이에 맞춰 전법 방식도 바꿨습니다. 전체 인원을 동원하는 대규모 법회 모임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딱딱하지 않으나 깊이 있는 체험'에 집중했습니다. 학기 중 격주로 진행되는 동아리 오프라인 법회는 소박하게 이어나가는 한편, 동아리 내 차담 소모임인 '티톡'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차를 나누며 마음을 터놓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 학기 소수 정예 인원이 중심이 되어 산사에서 나를 돌아보는 '템플스테이', 국내 여행이라는 가벼운 설렘을 담아 전국 방방곡곡의 천년고찰을 거니는 '사찰 탐방', 나아가 넓은 세상의 불교를 직접 견문하는 '해외불교 탐방'을 정기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소수라도 매 학기 꾸준히 이어진 이 여정들은 학생들의 마음을 끈끈하게 묶고, 동아리의 단단한 중심축이 됐습니다. 어수선했던 창립 초기의 불안함은 어느새 서로를 든든히 지지하는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이 같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BUDDHAI 청년들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가벼운 여행 삼아 동아리의 문을 두드렸던 학생들도,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라는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학생 전법은 시대 변화와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집 밖으로 나오길 주저하던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전통 사찰로, 템플스테이로, 나아가 세계로 걸어나가는 과정을 보며 법사로서 큰 보람과 희망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첨단융합대학 불교동아리 BUDDHAI가 첨단 학문을 탐구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 눈높이에서 함께 걷고 고민하며 전법의 길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정천 스님
동국대학교 전법특임교수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㉝ '자연산' 가을의 길목에서

마침내 가을. 달력에 박힌 '입추'라는 글자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민망한 시간을 한참 보낸 다음이다.

올여름은 모질게 더웠다.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벌써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어쨌든 견뎌냈다. 덕분에 내성이 생기려나 싶지만, 기후 변화의 속도가 현격히 앞선다. 기대 난망이다. 사실 우리의 인내심은 더 성능 좋은 에어컨 '돌려막기'로 더 허약해졌다. 겨울이 오면 우리는 반소매 옷을 입고 집안 가득 여름을 데려올 것이다. 계절 감수성은 이제 받아들이는 감각이 아니라 온도 센서 같은 통제 장치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미래를 탕진하고 있는데, 인공지능(AI)은 지금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컴퓨터가 만든 가상현실에 신기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미 우리의 현실은 충분히 '가상'이다. 여름에 겨울을, 겨울에 여름을 돈으로 사들이는 세상. 앞으로는 계절마저도 '자연산'을 따지게 생겼다.

드디어 가을. 이제 곧 우리는, 하늘이 햇볕으로 익힌 국화 향기 속에서 '진짜' 가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느낄 감정의 순도는 얼마나 '자연산'일까. 열병 걸린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일은 '동병상련'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여름을 여름답게, 겨울을 겨울답게 받아들이는 정직한 계절 감수성 말이다.

화엄사 보제루 국화꽃 문살을 보면서 기도한다. 우리 모두 이 가을만큼은 '무방비'로 만끽할 수 있기를.

손영자 작가



화엄사 보제루.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진옥스님과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1일 출발~11월06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90만원(보시금 30만원 포함)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02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99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출발일 : 27년1월13일 출발~1월20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차 11월20일 출발~11월29일 도착(10일간)
2차 27년1월16일출발~1월25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미얀마 성지순례 8일
출발일 : 1차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6일간)
2차 27년1월14일 출발-19일 도착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문의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27년3월14일 출발~19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출발일 : 27년5월25일 출발~5월31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길
27년 5월24일 출발~6월0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출발일 : 6월12일~6월27일(16일간)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